

나주시,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전남 최초...고령화 선제적 대응 국제적 정보·정책 교류 인프라 구축 8대 영역 3개년 계획 수립 추진

나주시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 도시로 가입했다. <사진> 나주시는 최근 전라남도 내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 도시로 가입 승인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WHO가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는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고령사회 정책의 국제적 정보, 정책 공유의 장이다.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는 2010년 미국



뉴욕시가 첫 회원으로 가입 승인된 이후 전 세계 41개국 1000여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활동하고 있다.

다. 시는 회원 가입으로 전 세계 선진화된 고령사회 대응 전략·정보 공유와 노인 복지 정책 추진에 있어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올해 10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22%(2만5198명)를 넘어선 UN (United Nation)에서 정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시는 민선 7기 출범 후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비롯해 65세 이상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WHO가 제시한 8대 영역에 대한 고령친화도 조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 3개년 실행방안 수립 등 고령친화도시 조성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WHO가 제시한 8대 영역은 ▲고령자 및 일자리 지원 ▲지역사회활동 참여 ▲의사소통 및 정보

제공 ▲지역 복지 및 보건 ▲안전 및 고령친화시설 ▲교통편의 환경 ▲주거편의 환경 ▲사회적 존중 및 포용 등이다. 특히 시는 고령자들만의 친화도시를 넘어 전 세대, 모든 연령층이 통합되고 함께 살아가는 도시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뒀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 가입은 인구 고령화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정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가겠다는 시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지역민의 활기찬 노년을 위한 건강, 사회 참여, 안전 분야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어르신과 더불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나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전기차·에너지 저장장치 사용 후 배터리 산업화 첫발

나주시, 16개 기관과 업무협약

나주시가 'EV' (Electric Vehicle, 전기자동차), 'ESS' (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저장장치)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전라남도, 한국전지산업협회, LG화학, 현대자동차, 목포대 등 15개 참여 기관과 'EV/ESS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recycling) 산업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 에너지정책 '차세대 2차전지 및 ESS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에 따른 산업부 주관 공모사업인 'EV/ESS 사용 후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사업' 선정에 이은 사업 추진의 첫 단추로 마련됐다. 나주시와 전남도,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전지연구조합 등 6개 유관기관은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국·도비 141억원 등 총 231억원을 투입하여 혁신산업단지 부지에 배터리 리사이클링 센터를 건립해 사용 후 배터리 성능 시험 및 안전성 평가 장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나주시와 전남도는 협약을 통해 EV-ESS 사용 후 배터리 수요 발굴 및 산업 확대를 위한 지원 및 정책·제도 마련과 관련 기업 유치에 적극 협력해가기로 했다. LG화학, 현대차, 우진산전 등 사업에 참여한 8개 민간기업은 사용 후 배터리의 상용화와 산업화를 담당한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나주 로컬푸드 급성장...직매장을 매출 100억 돌파

'생산자 협의회' 구성 추진

나주시가 농업인 소득 증대와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역점 추진 중인 로컬푸드 사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빛가람동(혁신도시)에 문을 연 직매장 1호점은 올해 누적매출액 100억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달에는 나주 원도심에 급남점 '급남와락(樂)' 2호점을 개장한데 이어 읍인솔 형태의 롯데슈퍼 문흥점 입점을 통해 광주권 진출의 교두보도 확보했다. 지난해 가장 큰 성과로 꼽힌 '공공급식' 부문 역시 올해 성장세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농가 소득 향상에 보탬이 됐다. 로컬푸드를 공공급식용 식재료로 납품하는 공급처의 경우, 혁신도시 공공기관 14곳과 지역 공공기관, 복지시설 5곳 등 총 19곳으로 전년 대비 7곳이

증가했다. 시는 지난 26일 로컬푸드의 양적 성장을 뒷받침할 질적 성숙을 위해 '로컬푸드 생산자 전진대회'를 열고 '생산자 협의회' 구성 등을 논의했다. 시는 생산자 협의회를 철저한 기획생산, 품질향상 등 출하 역량 강화를 위한 농가 간 내부 소통의 통로로 활용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시가 추진 중인 '푸드플랜 사업' 추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기반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나주 로컬푸드는 비약적인 성과를 통해 타 지자체의 귀감이 되는 먹거리 분야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며 "이제는 나주 푸드플랜의 핵심 주체로서 질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출하 농가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시는 지난 26일 '로컬푸드 생산자 전진대회'를 열고 로컬푸드의 질적 성숙을 위한 '생산자 협의회' 구성 등을 논의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립합창단 정기공연 다음달 3일 헨델의 '메시아'

나주시립합창단 '제8회 정기공연'이 다음달 3일 오후 7시 30분부터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시립합창단은 이번 정기공연에서 음악의 어머니로 불리는 독일 출신 헨델(1685~1759, Georg Friedrich Hande)이 작곡한 '메시아'를 총 90분간 선보인다. 헨델의 최고 역작인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주제로 한 총 3부(예언과 탄생, 수난과 속죄, 부활과 영생), 53곡으로 구성된 음악 작품이다. 헨델의 작품 가운데 일반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곡으로 성탄절에 즐겨 연주되고 있어 연말 분위기를 나타내는 음악이기도 하다. 특히 곡 중 44번째(2부 마지막 곡) '할렐루야 합창'은 영국 국왕 조지 2세가 곡이 연주되는 순간 벌떡 일어났다는 일화가 전해져 오며, 이후 할렐루야 합창 때는 청중들이 일제히 기립하는 전통이 있다. 이번 공연은 김정현 예술 감독의 지휘 아래 총 24곡의 폭넓은 레퍼토리를 무대를 선보인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나주시,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지구' 준공

에너지 신기술연구소 착공식도...에너지수도 건설 가속화

나주시는 혁신산업단지에서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지구 준공식'과 '에너지신기술 연구소 착공식'을 갖고 에너지수도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25일 혁신산업단지에서 강인규 나주시장, 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김중갑 한전사장, 신성훈 더민주 나주·화순 지역위원장 및 에너지 산·학·연·관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지구 준공식'과 '에너지신기술 연구소 착공식'을 개최했다. 시는 에너지밸리 조성 활성화에 있어 양쪽 날개 격인 산학융합지구와 에너지신기술 연구소 준공식과 착공식을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비전 실현을 위한 에너지 산·학·연 집적화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지구는 산단 내 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건축해 융합한 공간(지구)으로서 학교와 기업, 학생과 재직자가 참여한 연구 개발과 기업 수요중심의 새로운 인력양성 등을 위한 산·학 협력 모델이다. 시는 지난 2016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선정에 힘입어 국비 120억원 등 총 330억원을 투입하여 혁신산단 부지 6733㎡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산업단지 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준공했다. 산단캠퍼스에는 2개 대학(목포대, 전남도립대) 에너지 관련 4개 학과 346명의 학생이 이전에 급년

도 2학기(9월 2일 개강) 학과 수업을 받고 있으며, 기업연구관에는 40개 기업이 입주할 계획이다.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지구는 ▲근로자평생학습(재교육형 계약학과, 채용연계형 계약학과, 비학위 과정, 고교생 인턴십 등) ▲현장맞춤형 교과과정(프로젝트Lab, 비즈니스Lab, R&D인턴십 등) ▲중소기업 역량강화(산학융합 R&D, 장비지원센터, 기업연구관, 비즈니스 솔루션센터 등) 등 중소기업 기술 혁신과 연구, 현장·기업 맞춤형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이와 함께 이날 착공식을 가진 에너지신기술 연구소는 한전 산하 전력연구원 분원으로 지난 2016년 치열한 유치경쟁을 통해 나주 혁신산단으로 입지가 확정됐다. 에너지신기술연구소는 에너지 분야 특화기술, 미래 유망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 제품의 실증을 비롯해 산단 기업 육성 및 사업화 등을 수행하는 에너지신산업의 핵심 연구 기관으로 총 802억원을

투입해 혁신산단 부지 9만8781㎡에 본관, 특화기술시험동, 공동시험동, 신산업 실증시험장 등 총 5개 동을 오는 2021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신기술연구소가 준공되면 광주·전남 유치 기업과 대학의 연구 개발 선순환 생태계 구축은 물론 대전에 위치한 한전 전력연구원을 대신해 전남·경북 등 남쪽지역 기업, 대학 등이 나주에서 에너지 실증 시험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에너지밸리 조성계획의 핵심 정책인 산학융합지구 준공과 에너지신기술연구소 착공은 미래 100년의 먹거리인 에너지밸리 조성 활성화를 앞당길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한전공대 설립과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규제자유특구, 국가혁신클러스터에 이어 추진 중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까지 에너지신산업 4대 단지 지정을 통해 나주를 대한민국 에너지수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방치된 묘지 70%(추정)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062-412-2800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